

미국의 오렌지 생산동향에 관한 연구

-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

김 경 택*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캘리포니아 오렌지산업에서 선키스트의 역할 |
| II. 미국의 오렌지 생산동향 | IV. 미국의 오렌지 수출전략 |
| 1. 미국의 생산동향 | V. 결론 |
| 2. 미국의 생과용 오렌지 수출현황 | 참고문헌 |
| 3. 농가수취가격 | |
| 4. 수출비용 | |

I. 서론

1997년 7월 1일부터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의 수입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그동안 감귤조합이 오렌지 수입권을 갖고, 쿼터 물량에 한해 50%의 관세를 내고 수입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업자나 기업도 마음대로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관세율에 있어서 1998년도에 84.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2004년까지 관세율을 국영무역과 같은 올인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되어 있다.¹⁾ 이렇게 관세율에서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렌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실제로, 2000년도 상반기에만 감귤조합이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3만여톤을 포함하여 약 7만여톤의 네이블 오렌지가 수입되었다. 1월부터 6월 초순까지 네이블오렌지가 수입되었으며, 네이블 시즌이 끝난 6월 초순 경부터 추석 전까지 발렌시아 오렌지가 꾸준히 수입되었다. 2000년 12월말 현재 네이블 및 발렌시아 오렌지 총 수입물량은 약 10만톤이다.²⁾ 특히 지난 10월 23일 이후부터 2000/01년산 네이블 오렌지 시즌이 시작되었다. 2000/01년산 네이블 오렌지는 전년도와 달리 수확이 약 한달 정도 앞당겨졌다. 따라서 네이블 오렌지의 수입시기는 금년의 경우 제주감귤의 본격적인 판매시기와 중복이 되고 있다.

제주감귤과 출하시기가 비슷한 네이블 오렌지는 제주감귤산업을 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2000/01년산 캘리포니아 네이블 오렌지의 경우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품질은 전년도 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내수시장도 활

* 제주대학교 교수

1) 김경택 외 1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13집(1996), p.184.

2) 제주감귤 무역사업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얻은 자료임.

성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예고되어 있다. 가격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네이블 오렌지 수입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년도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 한국 산 과실류는 물론이고 농산물 전체의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수입물량이 줄어들어도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가 오렌지를 주로 수입하는 미국의 오렌지 생산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특히 제주감귤과 경쟁이 되고 있는 생과용 오렌지를 주로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오렌지 생산동향에 중점을 두고 살펴 보겠다.

II. 미국의 오렌지 생산동향

1. 미국의 생산동향

미국의 오렌지는 1997/98년산의 경우 기록적인 1,367만톤을 생산하였다(〈표 1〉참조). 그러나 1998/99년산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동해(freeze)로 급격히 감소하여, 약 989만톤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1992/93년산 이후 최저 생산량이다. 1999/2000년산 오렌지 생산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의 기후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전년도에 비해 약 28% 증가한 12.8백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7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이 전년도의 동해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렌지 나무에 대한 피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생각했던 것 보다는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의 네이블 오렌지는 1999/2000년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 91%의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과일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작았으며, 이로 인해 과일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서 농가수취가격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1998/99년산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72만 톤으로 전년도의 150만톤에 비해 약 52%나 감소하였다.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오렌지는 생산량이 약 92만 톤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약 49%나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 물량은 1995/96년 이래 가장 많은 량이다. 그리고 1998/99년산의 생산량은 58만 톤으로 전년도의 85만2천 톤에 비해 32%나 감소하였다.

플로리다는 1999/2000년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네이블 오렌지는 약 20%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8/99년산 네이블 오렌지는 생산량이 458만 톤으로 전년도의 573만 톤에 비해 20%나 감소하였다. 1999/2000년산 발렌시아 오렌지의 경우도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8/99년산 발렌시아 오렌지의 경우 그 생산량이 302만 톤으로 전년도의 426만 톤에 비해 약 30%나 줄어들었다.

미국의 생과용 오렌지 전체 생산의 약 70%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틀래어 카운티(Tulare County)는 캘리포니아 전체 네이블 생산량의 약 50%를 생산하고, 그리고 발렌시아 오렌지 생산량의 약 42%를 생산한다. 그 다음으로 켄 카운티(Kern County), 프레즈노 카운티(Fresno County) 순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네이블오렌지의 약 85%가 생과용으로, 그리고 약 15%정도가 가공용으로 쓰인다.

반면에 플로리다에서 생산되는 오렌지는 대부분 주스용으로 이용되고, 전체의 약 5%만이 생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7/98시즌의 생산량은 오렌지재배 역사상 가장 많은 량이며, 이것은 플로리다주

의 기록적인 오렌지생산량에 기인한 것이다. 플로리다에서의 단위당 수확량의 증가와 1985/86년 이후에 지속적인 수확면적의 증가가 이러한 기록적인 생산량을 유도하였다.

미국 전체 평균 네이블 오렌지 가격은 1997/98시즌에 \$9.62였으나, 1998/99시즌은 동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로 기록적인 \$16.85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전체 생산가액면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그리 차이가 없었다. 생과의 가격은 캘리포니아산이 플로리다산보다 높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산의 경우 생과용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공용 위주인 플로리다산에 비해 품질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공용의 경우는 플로리다산이 캘리포니아산보다 훨씬 높다.

〈표 1〉 미국의 오렌지 생산동향

구 분	수확면적 (Acre)	생산량 (1,000톤)	생식용 (1,000톤)	가공용 (1,000톤)	가격(\$)		생산가액 (\$1,000)
					생과용	가공용	
캘리포니아:							
네이블							
1997-98	127.000	1.498	1.244(83.0)	256(17.0)	10.58	0.36	388.870
1998-99	128.000	717	392(54.7)	324(45.3)	19.48	0.36	227.440
1999-00	126.000	1.364	1.057(77.5)	307(22.5)	9.28	0.04	288.040
발렌시아							
1997-98	73.200	852	648(76.1)	205(23.9)	11.00	2.79	225.740
1998-99	73.500	580	341(58.8)	239(41.2)	20.90	3.04	188.480
1999-00	73.500	920	614(67.0)	306(33.0)	7.40	0.84	140.760
플로리다:							
조생 및 중생							
1996-97	328.900	5.490	294(5.4)	5.196(94.6)	5.60	4.51	639.722
1997-98	317.400	5.727	312(5.5)	5.415(94.5)	10.30	5.97	695.330
1998-99	317.700	4.582	252(5.5)	4.330(94.5)	7.80	4.87	671.640
1999-00	306.700	5.482	266(4.9)	5.216(95.1)			
발렌시아							
1997-98	291.800	4.255	138(3.3)	4.116(96.7)	6.10	6.75	699.807
1998-99	294.900	3.015	190(6.3)	2.825(93.7)	11.40	7.27	557.374
1999-00	295.400	4.050	118(2.9)	3.932(97.1)	7.20	6.40	635.912
미국:							
조생, 중생 및 네이블							
1997-98	457.200	8.020	1.763	6.257	9.44	4.32	1,035.451
1998-99	457.900	5.901	769	5.132	15.62	5.57	942.257
1999-00	444.200	6.926	1.384	5.542	8.94	4.59	973.968
발렌시아							
1997-98	370.800	5.650	895	4.755	9.98	6.56	929.907
1998-99	372.900	3.985	606	3.379	17.13	6.93	758.275
1999-00	373.400	4.995	751	4.244	7.28	5.99	778.941

* 1 Acre는 약 1.226평임

자료 : USDA, Citrus Fruits, 2000, 9, 21.

1997/98시즌에 미국 전체 오렌지 생산의 77%를 플로리다에서 생산하였으며, 22%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였다. 또한 아리조나에서 0.5% 그리고 텍사스에서 나머지 0.5%를 생산하였다. 플로리다의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확대와 함께 계속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 오렌지 전체 생산량의 약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20%내외에서 현상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

2. 미국의 생과용 오렌지 수출현황

1998/99시즌에 미국은 약 30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이것은 오렌지 수출물량에 있어 최근 20여년간 가장 작았던 1990/91년산 다음인 두 번째로 작은 물량이다. 미국의 생식용 오렌지 수출의 가장 많은 기록은 1997/98시즌의 63만4천 톤이다.

그동안 미국 감귤류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은 일본과 홍콩이다. 그러나 금년 들어 한국이 미국 오렌지 수출의 주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 한국의 오렌지 수입물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표 2>에서 보듯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MMA물량을 포함한 전체 수입물량은 97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이것은 97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인업자나 기업이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입량은 캘리포니아의 1998/99년산 오렌지의 동해로 인해 3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10월 8일 현재까지 93.169톤을 수입하였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세 배 이상이나 많은 물량이며, 금년 10월 20일 이후부터 네이블오렌지 시즌이 시작되면 그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 2> 한국의 오렌지 수입현황³⁾

(단위 : M/T)

년 도	MMA물량	수입량 ^{**}
1995	13.985	13.985
1996	18.169	18.169
1997	22.531	39.276
1998	26.321	38.520
1999	14.597	30.853
2000 [*]	30.715	93.169

* 1월 1일 ~ 10월 8일까지 수입 물량임

** MMA물량 및 개인업자나 기업의 수입을 포함한 전체 수입액

이렇게 미국의 오렌지 수출이 해외시장에서 최근 들어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은 오렌지 생산농가들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캘리포니아 오렌지 시장의 약 50%를 장악하고 있는 Sunkist와 미국정부의 공격적인 수출촉진활동 영향이다. 고품질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3) 1995년에서 1999년까지는 제주농협지역본부·제주감귤협의회에서 발간한 『99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2000. 7.) p. 70 을 참고하였으며, 2000년도는 제주감협 무역사업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얻은 자료임.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온주밀감,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 온주밀감과 비슷한 품종인 클레멘타인을 수입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으로부터 1997년도에 1,183톤을 최고로 1998년도에는 전혀 수입을 하지 않았으며, 1999년산의 경우 377톤을 수입하였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볼 때 1990년에 989톤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물량이 점차 감소하여 왔다. 1999년도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약 337톤이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kg당 수입단가가 1989년도에 \$1.26에서 1994년도에 \$2.02로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표 3〉 미국의 생과용 오렌지 수출입 현황

단위: M/T, mil. \$

시즌	오렌지				만다린 & 탠저린	
	수출량	수출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1980-81	437.818	200.1	7.400	1.69	12.955	4.07
1981-82	389.500	204.1	14.077	3.14	22.918	7.77
1982-83	415.864	205.7	6.095	2.13	9.855	2.39
1983-84	403.409	213.4	16.504	6.35	18.536	4.51
1984-85	372.636	224.3	23.468	9.87	6.918	2.09
1985-86	398.091	224.9	29.245	12.76	9.145	3.82
1986-87	419.273	236.8	19.677	6.27	13.441	7.35
1987-88	334.909	189.6	22.577	9.88	14.991	4.97
1988-89	364.182	210.1	8.145	4.07	17.355	6.75
1989-90	473.682	256.8	11.650	4.74	16.782	7.54
1990-91	294.136	203.5	61.277	40.64	20.977	12.15
1991-92	452.591	254.8	13.918	6.62	19.377	16.20
1992-93	550.818	266.8	8.591	3.22	19.641	16.98
1993-94	538.136	291.4	13.705	11.71	17.827	17.57
1994-95	602.727	331.1	19.186	12.65	21.559	19.17
1995-96	526.364	293.9	21.986	17.43	19.314	19.05
1996-97	585.591	320.7	24.409	20.95	33.155	35.25
1997-98	634.000	358.4	38.373	36.90	40.373	45.45
1998-99	299.727	188.7	104.0955	82.46	55.718	65.74

자료 : USDA, Citrus Fruits, 2000. 9. 21.

한편 스페인산 클레멘타인의 수입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스페인산 클레멘타인의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수입단가 측면에서 볼 때 일본산이 스페인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페인산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에 일본산의 수입은 감소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농가수취가격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오렌지의 수확, 운송, 선과, 포장, 저장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패킹하우스(Packing House)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농가수취가격은 패킹하우스 판매가격(FOB Packing House Price)에 수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생긴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가격을 말한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생식용 오렌지 출하경비는 패킹하우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7.5파운드(약 17kg) 한 상자 당 평균적으로 \$4.60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⁴⁾ 출하경비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선과·포장비가 \$2.94로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수확비 \$0.87로서 19%, 판매·사무·홍보 등의 판매비가 \$0.60으로 13% 그리고 농장에서 패킹하우스까지 운송비가 \$0.18로서 4%에 해당한다. 1999/00년 산 캘리포니아 네이블오렌지 생식용의 패킹하우스 판매가격은 \$9.28이었다. 그러면 농가수취가격은 출하경비 \$4.60을 공제한 \$4.64이다.

가공용 오렌지 한 상자 당 출하경비는 약 \$1.50이다. 이 중 수확비가 \$0.87로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판매를 포함한 취급비가 \$0.45로서 전체의 30% 그리고 운송비가 \$0.18로서 12%이다. 1999/00년산 네이블 오렌지의 가공용 가격은 \$0.04로서 출하경비 \$1.50을 공제하면 -\$1.46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4. 수출비용

캘리포니아주내의 항만에서 오렌지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은 팔렛(Pallet)작업비용, 온도계 장착비,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보험료 등이다. 한 상자 당 소요되는 수출비용은 약 \$3.0이다. 따라서 오렌지 수입가격은 패킹하우스 판매가격(FOB Packing House Price)에 수출업자의 마진(Margin), 수출비용 \$3.0 그리고 관세를 합한 가격이 된다. 수출 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냉장컨테이너이고, 42파운드 상자 1,008개를 적재할 수 있다.

III. 캘리포니아 오렌지산업에서 선키스트의 역할

1893년도에 감귤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SCFE(Southern California Fruit Exchange)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것이 1905년도에 CFGE(California Fruit Growers Exchange)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SUNKIST라는 이름은 1952년도에 채택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지역을 포함한 선키스트 소속 조합원의 수는 약 6,500명이다. 물론 이 수는 오렌지, 그레이프후르트, 레몬, 그리고 탠저린 및 만다린을 생산하는 농가 전체를 포함한 것이다. 선키스트의 주요한 판매 시장은 미국내 시장과 해외시장으로는 한국,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등이다.

1998년도 하반기에 선키스트는 20년동안 최고경영자로서 선키스트를 이끌어 왔던 할린(Hanlin) 사장이 은퇴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맞아 들었다. 신임 사장이자 최고경영자인 루피나치(Lupinacci)는 두 가지 주요한 목표를 세우고 선키스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⁵⁾ 첫 번째 목표는 조합원들에게

4) 출하경비 및 세부적인 경비 내역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packing house들을 직접 방문하여 packing manager 및 sales manager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임.

5) Sunkist, 1999 Annual Report, 2000, p.3.

에이커당 소득을 증대 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선키스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및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선키스트 최고경영자는 과거에 한 명 뿐이었던 부사장 자리를 세 개나 만들었다. 즉,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부사장, 해외판매를 담당하는 부사장, 그리고 마케팅 담당 부사장 등이다. 마케팅담당 부사장의 역할은 전세계 시장에 선키스트 상품의 판매촉진은 물론이고 홍보를 담당한다. 또한 선키스트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도 마케팅 부사장의 몫이다.

최근에 전략적 계획 책정(Strategic Planning) 담당 부사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책임자를 찾고 있다. 이 자리는 선키스트 전체의 경영목표와 변전하는 여러 시장기회와의 전략적 적용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선키스트는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발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 팀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통틀어서 Sunkist만큼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는 없다.

〈표 4〉 선키스트의 감귤류 수출현황

(단위: M/T)

국 가	1997	1998	1999
일본	157.074	153.833	107.882
홍콩	114.971	126.463	34.493
싱가포르/말레이시아	48.170	45.475	22.202
유럽	1.551	1.615	680
기타	43.739	41.871	16.830
총계	365.506 (263.000)	369.257 (270.000)	182.087 (82.551)

()안은 네이블 및 발렌시아 오렌지 수출량임

자료 : Sunkist, 1999 Annual Report, 2000.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농가들의 약 50% 정도는 선키스트 조합원이고, 나머지 농가들은 개별 패킹 하우스(Packing House)에 소속되어 있다. 즉,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농가 조합은 선키스트라는 대규모 조합과 소규모 조합 형태인 개별 패킹하우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키스트 패킹하우스가 여러 개 있으며, 곳곳에 독립적인 개별 패킹하우스들이 산재해 있다. 개별 패킹하우스들은 수십 호의 생산농가들에 의해 물건이 공급되어진다. 이 곳의 패킹하우스는 제주지역의 선과장과는 그 규모나 운영체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생산농가들은 생산만을 맡아서 하고, 농장에서의 수확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확한 오렌지의 패킹하우스 운송과 그 이후 단계인 오렌지의 세척, 선과, 포장, 저장, 그리고 판매 등이 패킹하우스 전문경영인과 분야별 팀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패킹하우스에서의 전 과정에 생산농가는 일체 관여할 수가 없으며, 분야별 전담팀의 책임하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과 시에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 수출용, 내수용, 그리고 가공용으로 분류되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오렌지 품질관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 판매액은 패킹하우스 수수료를 공

제하고 생산농가에게 지불된다. 전 과정이 컴퓨터로 정확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한 물건중에서 몇 상자는 생과용이고, 생과용 중에서도 몇 상자는 수출용이고 몇 상자는 내수용인지 정확하게 계산 된다. 또한 생과용으로 쓸 수 없는 것들 중에 몇 상자는 가공용인지도 정확하게 계산되어진다. 그리고 패킹하우스마다 판매담당 팀이 있어서 이들이 전담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 농가에게 정산되어진다.

선키스트는 캘리포니아 생과시장에서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독립적인 개별 패킹하우스들의 고시가격은 Sunkist가 매 주 월요일 날 발표하는 고시가격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Sunkist의 고시가격이 나온 다음날인 화요일에 개별 패킹하우스에서도 고시가격을 발표한다. 이 고시가격은 그 다음 주에 판매될 상품의 판매가격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패킹하우스들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을때는 Sunkist와 같은 가격을 고시하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을때는 Sunkist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시한다.

1999년까지 선키스트의 가장 큰 해외시장은 일본과 홍콩이다. 동해로 인해 오렌지 수출에 차질이 있었던 1999년도를 제외하고 일본은 매년 16만톤 가까운 물량의 감귤류를 수입해 왔다. 홍콩 역시 선키스트의 주요한 고객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2000년도 들어서 한국이 선키스트의 주요한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캘리포니아 현지에서는 일본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홍콩도 2000년도에 오렌지 수입선을 다변화 시키면서 수입물량이 많이 줄어 들었다. 따라서 선키스트에게 현재 가장 매력있는 시장은 한국이 되었다.

선키스트는 2000년도 중반까지 LG상사, 해태, ANA 등 3개 업체를 통해 한국시장을 개척하였다. 2001년도 1월부터는 현재 LG상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썬로그(주)와 해태를 통해 선키스트 오렌지가 대폭 수입될 것이다. 2000년 10월 30일 현재 선키스트 오렌지는 입찰물량 5,700톤을 포함하여, 약 2만 4천톤 정도 수입되었으며, 연도말 까지 약 3만톤 가까이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시장이 선키스트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시장을 교두보로 하여 중국시장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시장은 그야말로 앞으로 2000년대에 선키스트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주요한 전략 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선키스트에 의한 한국시장 점유율 높이는 시간 문제이며, 품질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입 맛을 길들이려고 하는 선키스트의 고도의 전략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IV. 미국의 오렌지 수출전략

미국에서 발간되는 패커스(Packers)라는 농민신문에 의하면 2000년 6월 21일 캘리포니아 네이블 오렌지 생산농가 75명이 모여 2000/01년 산 네이블 오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많은 농가들은 금년에 오렌지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지면서 에이커당 순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농가들은 금년도에 가격이 낮은 원인을 1998/99년 시즌처럼 동해를 입을까봐서 너무 일찍 수확을 한 것이 품질을 떨어뜨려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느 농가는 오렌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 각 패킹하우스들이 서로 공조체제를 갖추어 최저가격(minimum floor price)을 정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오렌지 최저 사이즈도 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가들 스스로 가격하락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산업은 과잉생산으로 인해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고누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산업이 존속하고,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이 필수적 요건이다. 특히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시장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농가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농가들은 수출의존형 농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거대조직인 선키스트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정부도 다각적인 해외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1985년에 CAEP(California Agricultural Export Program)를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었다.⁶⁾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업자들이 시장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0년도에만 CAEP가 주관이 되어서 중국에서 3번, 멕시코에서 3번, 그리고 싱가포르, 필리핀, 프랑스 등에서 각 1번씩 농산물 무역쇼(Trade Show)를 개최하였다. 실제로 1996년에만 CAEP에서 주관한 해외 무역쇼에서 53개 캘리포니아 수출업자들이 약 400억원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미국은 구조적인 과잉생산능력을 상쇄하기 위하여 식부제한 및 휴경보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식부제한 및 휴경보상정책은 많은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수출이 부진하면 휴경면적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것은 정부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농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렌지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이외 외국의 농업 또는 농민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의 감귤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미국의 오렌지 산업동향, 특히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산업동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998/99년 시즌의 동해로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농가들은 급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선키스트 전체농가들의 수입은 1997/98년도의 8억 6천 1백만 달러에서 1998/99년 시즌에는 7억 4백만 달러로 18%이상이나 감소하였다.⁷⁾ 그리고 1999/00년 시즌에도 생산량의 과잉과 국내 소비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2년 연속 낮은 소득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생산농가들은 소비 감소와 더불어 스페인산 및 호주산 감귤 등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근래에 들어 적지 않은 오렌지 생산농가들이 파산을 하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0/01년산 네이블 오렌지의 생산량이 약 116만톤으로 전년도의 136만톤에 비해 약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산량 감소와 함께, 품질이 전년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귤류가 수입개방이 되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할 상대국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경쟁

6) 참고한 web site은 <http://www.cdfa.ca.gov/exports/index.html>임.

7) USDA, Citrus Fruits, 2000, 9. 21. p. 1.

이 되는 생과용 오렌지 생산의 70%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다. 특히 2000년 12월말 현재 이 지역에서 약 10만톤의 네이블 및 발렌시아 오렌지가 한국으로 수입되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네이블 오렌지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렌지 수입물량의 증가로 국내산 과일 소비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여 농가들의 시름을 더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렌시아 오렌지의 출하시기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이며, 네이블 오렌지는 11월중순부터 이듬해 6월 중순까지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오렌지는 연중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 노지감귤은 물론이고, 하우스감귤에도 심각한 영향을 입힐 수 있다. 특히 2000/01년산은 네이블 오렌지의 수확시기가 약 한달 정도 앞 당겨졌으며, 현재 소량이지만 상인들을 통한 시범적인 수입이 계획되고 있다. 물론 2000년도 하반기에 출하되는 네이블 오렌지는 가격도 비싸고, 가스를 사용하여 후숙시키기 때문에 내수용을 위주로 하고 있고, 수출용은 아니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 수입되는 네이블 오렌지는 그 품질이 대단히 우수하기 때문에 제주감귤은 물론이고 한국산 과실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소비자들의 오렌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좋은 것은 국내산 과일들의 품질이 우려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는 현지에서 생산된 것중 최고의 것만을 선별하여 수출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산 오렌지는 패키징하우스에서 선과하여 수출용인 웬시(Fancy)와 내수용인 초이스(Choice) 그리고 가공용으로 구분한다. 수출용인 웬시는 내수용과 달리 대단히 품질이 높은 상품이다. 따라서 제주산 감귤도 품질로 나서지 않을때는 앞으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WTO체제하의 자유경쟁시장체제하에서 수입업자만을 원망하고 닥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럴수록 더욱더 품질 향상에 진력하여 소비자들이 제주감귤을 외면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택 외 1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13집, 1996. pp.177-221.
- 제주농협지역본부·제주감귤협의회, 『'99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2000. 7.
- Sunkist, 1999 Annual Report, 2000.
- USDA, Citrus Fruits, 2000. 9. 21.
- USDA, Fruit and Tree Nuts Reports, 2000. 3.
- USDA, Brazil Citrus Semi-Annual Report 1999, 1999. 11.
- web site <http://www.cdfa.ca.gov/exports/index.html>